



“로케이션 인센티브 늘리고 인력 확충해야”

올해 지원 예산 전년보다 줄어
‘제주 촬영 유치 효과’ 보고서
드라마 ‘꼭꼭 속았수다’ 들며
제주 팸투어 네트워크 강조
전담 직원 추가 배치도 주문

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넷플릭스 드라마 ‘꼭꼭 속았수다’의 글로벌 흥행에 맞춰 로케이션 작품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다. 로케이션 지원 담당자도 1명에 불과하다.

19일 제주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올해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비는 3억원. 제주도는 ‘꼭꼭 속았수다’의 성공을 보며 로케이션 작품 유치를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2025년 3억5000만원(추경 포함)보다 적다.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제주에서 촬영되는 영화, 드라마 등 제작진 소비액의 30%(지역 소비액 1000만원 이상)를 로케이션 유치·지원 예산으로 환급(최대 1억원)하고 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용역 보고서 ‘제주 지역 촬영 유치 경제 파급 효과 분석 연구(2022~2024)’ 부록으로 실린 2025년 제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작품의 직접 지출액은 9개 작품 약 12억1400만원. 가장 많은 지출 분야는 숙박비(27.31%)였고 임차료(22.46%), 인건비(19.58%)가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는 제주 지역 영상 로케이션 지원 인센티브 현황 분석에서 “제주는 타지방에 비해 최대 지원금액은 높으나, 환급률과 지역 소비액 기준은 낮은 편”이라고 했다. 환급률이 낮다는 것은 섬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촬영과 관련된 물자를 유입해야 하는 비용과 제주 지역 내 지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지출처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인센티브 상한액이 낮아 대형 OTT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별도 인센티브 확대도 주문했다.

보고서에선 “현재 영상 로케이션 지원 담당자 1인으로는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어려우며, 특히 제작사와의 협의와 소통을



제주 소재 드라마로 인기를 모은 ‘꼭꼭 속았수다’.

넷플릭스 제공

통한 지역 내 파급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로케이션 매니저 역할을 전담할 인원 1명을 더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꼭꼭 속았수다’가 제주에 끼친 영향력을 거듭 강조한 연구진은 “일반적인 팸투어에서 벗어나 독특한 제주의 문화와 독보적인 자연환경이란 제주의 자산이 영상 작품의 소재가 되도록 영상 로케이션 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제주 문화를 깊이 있게 소개하고 이를 작품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영상 로

케이션 지원은 제작사 촬영의 편의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책 결정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콘텐츠진흥원 측은 “제주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아야 오랫동안 제주에서 촬영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올 하반기 재개되는 로케이션 팸투어는 참가자들이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선기획사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청소년 여름 춤 캠프 ‘무용아 놀자!’=제주 청소년들이 우리 춤을 쉽고 생동감 있게 접하도록 기획한 프로그램. 8월 3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 문화회관 교육실에서 제주도립무용단원들이 지도를 맡아 봉산탈춤, 장고춤 2개 과정 기초 교육을 운영한다. 청소년들은 직접 움직이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중학생 40명(봉산탈춤 20명, 장고춤 20명) 모집. 참가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어린이 AI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AICE Future 3급 과정)’=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인공지능(AI) 이해와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 어린이를 위한 AI 기초 교육 과정으로 AI의 원리

와 활용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이끈다. 운영 기간은 8월 4~7일로 11~13세 어린이가 대상이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AI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자격 시험에 도전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20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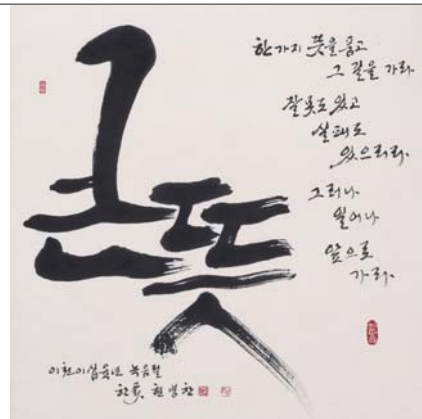
▷글로벌국제음악가협회 ‘2026 아이뮤직(MUSIC) 제주국제제썸퍼피아노페스티벌&콩쿠르’=세계 각국의 피아니스트와 음악 교육자, 음악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주와 교육 등을 펼치는 국제 음악 축제. 국제 피아노 콩쿠르, 마스터 클래스, 국제 세미나, 참가자 연주회, 갈라 콘서트 등이 이어진다. 국내외 콩쿠르 참가자는 물론 가족들이 행사 기간 제주를 찾아 문화 교류에 나선다. 이달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한라아트홀.

2026 제주서예문화축제 ‘두 글자’전에서 체험까지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제주도 문화회관 전시실 전관을 활용해 2026 제주서예문화축제를 열고 있다. 지난 18일 막이 오른 서예문화축제는 1~3전시실에서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1전시실에서는 전국 공모로 진행한 제33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대전 입상작을 선보이고 있다. 2전시실에서는 ‘두 글자 서예전’을 펼치고 있다. 한글·한문 등 두 글자로 된 글씨를 써 내려간 작품으로 짧지만 함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3전시실은 초대작가전으로 꾸며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대전 초대작가 50명의 작품이 걸렸다.

전시 기간에는 올해로 33회째인 제주도 서예대전의 역사를 기록하



두 글자 서예전 현병찬의 ‘큰 뜻’.
서예협회 제주도지회 제공

고 보존하는 의미로 그간의 대상과 우수상 작품 등 관련 자료들을 디지털화해 상영한다. 20~21일에는 2전시실에서 서예문화축제 체험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문객 누구나 전각·문인화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19일에는 ‘제주 서예의 근원을 찾아서’란 이름 아래 도민들과 함께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자구리 문화예술공원 등을 돌아봤다.

전선기획사

영화觀 미명

상실과 애도 사이

우리가 무언가를 갑자기 잃었을 때 상실이라는 자각은 언제쯤 삶에 안착되는 것일까. 충격과 눈물이 발생하고 부정과 탄식이 뒤따른 후 망연자실과 자포자기의 비중이 커질 즈음에서야 온전한 자각이 가능해질까. 삶을 크게 차지하던 존재가 사라진 자리는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 나는 있고 당신은 없다. 나는 당신이 없는 상태로 나일 수 없다. 상실과 애도 사이에는 자각과 체념으로 뒤엉킨 연옥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진짜일 리 없고 가짜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 살아남은 자를 일으켜 세워 죽음 뒤의 삶에 가담게 할지도 모른다. 이원영 감독의 영화 ‘미명’은 그렇게 이 희망과 절망의 요소들로 가득 찬 상실 후의 시간들을 그리는 영화다.

몽골 역사를 연구하는 남편은 아내와 행복한 일상을 보낸다. 하지만 생일상을 차리고 외출했던 아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전날 밤 부부는 TV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목격했었다.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 둘은 말을 잃지 못했다. 부부의 행복했던 일상이 하루 만에 완전하게 뒤바뀌어 버린다. 비상계엄이라는 믿을 수 없는 뉴스를 접한 이들의 세상 또한 그랬을 것임을 우리는 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목소리를 잃는다.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목소리마저 잃은 그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는다. 당신을 잃고 목소리마저 잃은 나는 내가 맞을까.

겨울 밤의 고요한 시간에 잃어버린 아내의 흔적이 찾아온다. 아내의 존재를 직감하는 남편은 휴대폰 음성 어플을 통해 허공을 향해 소리를 띄운다. ‘당신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당신이 맞다면 제발 불을 켜줘.’ 그의 말투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니다. 아내임이 분명하지만 또 확신할 수 없는 불분명한 조우가 수차례 돌아왔다.



영화 ‘미명’.

레 이어진다. 그 사이에 또렷한 소리들과 희미한 빛들이 존재한다. ‘미명’은 소리와 빛으로 상실과 애도 사이에 놓인 남자의 연옥을 채운다. 관객들은 빛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이 사랑의 목격자가 된다. ‘미명’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랑의 영화다. 희미하고 불분명한 요소들 앞에는 강력한 사랑의 기운이 존재한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랑의 서사는 모든 부분을 탐색한다.

‘미명’의 사랑을 진혼곡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아직 상실이라는 자각에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세레나데를 부르는 이다. 아내가 좋아했던 파스타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초에 불을 붙이며 아내의 존재를 소망한다. 추억을 꺼내놓는 이에 게 죽음이 이별의 통보일 리 없다. 급기야 그는 새로운 연인을 배우러 몽골로 떠난다. 목소리를 찾아야 선명해질 것들을 믿기 때문이다. 죽음을 경유한 이별이 가장 큰 비보일 것이다. ‘미명’의 믿음은 믿어지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은 비보 위에서 희망의 춤을 춘다. 일렁이는 마음들이 포개질 때 사랑은 형상을 얻는다.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이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것들로 이루어진.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옥조근정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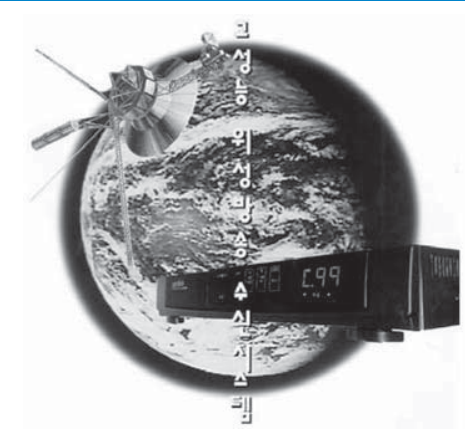


박 기 중
(세태공계 17세)
(前 해안초등학교 근무)

옥조근정훈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밀성(밀양)박씨 은산부원군파 제주도종친회
회장 박종길 외 종친 일동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